

순천의 꿈 '책 읽는 도시' 무르익는다

도시 전체에 독서 바람을 불러낼 수 있다면...
순천이 책 읽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모든 시민들에게 책값을 지원하는 사업을 5년째 추진하고 있어서다.
젊은층에 대한 관심은 더하다. 스마트폰에서는 눈을 떼지 못하면서 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요즘 젊은층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무작정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 책값의 절반을 부담하며 책 읽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순천시가 책 읽는 도시 문화 만들기 공을 들이고 있다.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시민들. <순천시 제공>

**市, 모든 시민 책값 30% 혜택
청년 도서구입비는 50% 지원
'한 책 읽기'·'1인 20권 읽기' 등
독서 열기 확산 다양한 정책 펼쳐**

◇모든 시민에게 책값을 = 시민들이 구입하는 책값의 30%를 대신 내주는 도시, 순천시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추진중인 '전 시민 좋은 책 지원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5년째 곳곳에 지원하며 독서 문화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대출회원증만 있으면 동네 서점(2017년 기준 17곳) 어디에서나 책값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매년 순천시가 추천하는 '권장도서'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베스트셀러, 전문가추천도서, 사서 추천도서, 순천시 인문학 강연도서 등 권장도서 폭이 넓어 대부분 포함될 정도다.

순천시가 할인금액의 20%를 부담하고 서점도 책 읽는 공동체 만들기 동참한다는 취지로 10%를 깎아주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1616만원 수준으로, 책 읽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감당할만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책값 부담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순천시가 집계한 '좋은 책(권장도서) 판매권수'는 매년 1000권 이상 늘어나고 있다.

'모든 시민 도서 지원' 정책을 시작한 2014년 2785권이던 책(권장도서) 판매량은 ▲2015년 4044권 ▲2016년 5274권 ▲2017년 6079권 등으로 부쩍 늘어났다.

◇이래도 안읽을래~젊은이들에게 권 더=젊은층의 독서 기피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순천시가 구입한 책값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 꿈 찾기 도서구입비 지원' 정책을 2년째 추진하는 것도 청년들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순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기존(만 19~28세)보다 확대(만 19~38세)한 게 특징이다. 19~38세의 순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 승인을 받은 뒤 신청한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전년도와 달리, 순천시 권장 필독도서를 50% 이상 구입하지 않고 전공서적과 수험서 등 전문서적만 구입하려고 해도 책값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점이 10%를 부담했던 방식도 순천시가 50% 예산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순천시는 청년 책값 지원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지원액은 최대 10만원으로 20만원어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책과 친숙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책 읽기 운동·1인 20권 책읽기 도=순천을 커다란 책 마을로 만들기 위한 독서 정책은 다양하다.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 1인 20권 책읽기나 다중이용 시설에 서가를 비치, 누구나 읽을 수

도록 하는 '책드림문고'도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시민 모두가 한 해 동안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담론(談論) 문화'를 조성하자는 한 책 읽기 운동은 2004년부터 진행중이며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1인 20권 책읽기'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인 20권 책읽기'는 첫해 15권으로 시작, 지난해 '1인 18권 읽기'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20권으로 올렸다. 목표를 달성하면 순천시가 기념 인증서를 만들어준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확산시키면서 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효과 뿐 아니라 '동네 서점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청회로 첫발

**'몽미락이 있는 청사들'
2022년까지 7105억 투입
'비타(vita)민(民), 갈마골'
지역공동체 거점 만들기 추진**

순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첫 발을 뒀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지역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사전)를 개최했다.

앞서 순천시는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들이라는 명칭으로 장전동 일대(20만966㎡)에 오는 2022년까지 7105억원을 들여 정원산업 및 생태미식, 반려산업 육성 등 순천만 방문객들과 연계, 중심시가지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에 신청, 선정된 바 있다.

순천시는 또 ▲비타(vita)민(民), 갈마골이라는 주제로 저전동에 지역공동체 거점을 만들고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정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포용력을 키우는 주민교육', '가족단위 숙박시설 확대',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순천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2월말 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면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 본격적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 내달 5일부터 모집

순천시는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 수강생을 오는 2월 5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는 훈련을 받고 매개활동역할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동물과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격려, 위로, 행복을 전달하는 봉사자다.

매개활동역할은 사체탐지견, 인명구조견, 맹인보조견처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위해 훈련된 개를 말한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이 매개치유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동물교육과 매개치유역할을 다룰 수 있는 관리자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2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1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순천시청 반려산업팀 (061-749-4468, 4467)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매개활동 관리사가 병원에서 반려견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자원봉사자 평창올림픽 활동 시작

109명 본격 지원 나서

순천 자원봉사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본격적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109명의 평창동계올림픽 순천시 자원봉사자들은 평창으로 파견, 지난 25일부터 현장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숙박·관람객 안내를 주로 맡게되며 25일 배치된 선발대를 시작으로

로 봉사활동에 들어가 상태로 관광안내 봉사활동을 맡는 봉사자들의 경우 오는 2월 5일부터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 봉사자들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면서 "순천의 나눔과 배려의 시민정신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